

이용섭 광주시장, 14대 핵심공약 제안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건설

민선7기 세부실천계획 본격화

일자리·골목상권 활성화 등 포함



이용섭 광주시장

광주광역시시는 민선7기 이용섭 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해 본격적인 세부실천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시는 시정 인수위원회 격인 광주혁신위원회로부터 이용섭 시장이 출마선언 이후 시민들께 약속한 '1자리2용성 12대 시민공약'을 바탕으로 마련한 14대 핵심공약과 74개 실천과제를 제안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14대 핵심공약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광주 만들기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광주를 먹여 살릴 미래산업 유치 ▲민주·인권·평화세계중심도시도약 ▲출산과 보육이 행복한 광주 만들기 ▲장애·비장애 차별 없는 동행(同行) ▲노후가 걱정없는 행복한 광주 ▲여성과 아이들이 당당한 광주 ▲문화수도 광주 '컬처 유도피아' 선포 ▲광주를 확실하게 바꾸는 'GREAT광주' 도시재생 ▲편리하고 안전한 선진교통도시 광주 ▲미세먼지 없는 청정 광주 만들기 ▲맑

고 깨끗한 푸른 광주 만들기 ▲세계적 수준의 안전도시 광주 만들기 등이다.

이 핵심공약과 실천과제는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의 시정 비전과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건설'을 위한 5대 목표인 '풍요로운 광주', '정의로운 광주', '따뜻한 광주', '품격있는 광주', '안전하고 편안한 광주'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각 실, 국, 본부, 직속기관에서 본격적으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중이다. 특히 광주혁신위원회와 토론과정 등을 거쳐 제안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가면서 연차별 추진일정, 사업비 투입구

모, 실행가능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시장 주재 '주요 역점시책 및 공약실천 계획 보고회'를 개최해 실·국 검토를 거쳐 수립된 세부 실천계획에 대한 보고와 토론을 통해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약 확정 전까지 수시로 실·국별로 학계, 전문가, 광주전남연구원 등의 자문을 거쳐 자문을 거쳐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아울러, 8월중 공약평가 시민배심위원단을 구성해 시에서 수립한 공약실천 계획을 시민 눈높이에서 평가하는 등 시민의 의견도 반영해 민선 7기 공약 세부 실천계획을 8월 말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오재중 시 정책기획관은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건설하기 위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시민들께서 꼭 필요로 하는 내용을 민선 7기 공약사업에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봉태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성남시 '개성공단 입주기업' 상품 특별판매

성남시는 오는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시청 로비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우수 상품 특별판매전'을 연다.

성남시청서 특판전이 열리기는 이번이 3번째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주최하는 이번 특판전은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123개 기업 중 10개사가 참여한다.

참여기업(주력 상품)은 성남시 관내 기업인 알디앤웨이(등산화), 영이너품(기능성 속옷), 베스트프렌드(아동 내의), 팀스포츠(등산 의류), 석촌도자기(주방용품), 성화물산(기능성 양말), 서한섬유(신사 양말), 에스제이테크(가죽 제품), 로만손(시계류), 신영스텐(냄비류) 등이다.

모두 100여 개의 품목을 정가보다 최

대 70% 정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앞선 3월 26~28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특판전 때 참여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10개사는 행사기간에 7386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판매액은 주최 측이 개성공단 폐쇄(2016.2) 이후 전국 공공기관 등을 돌며 진행한 특판전 16회 평균 매출 2100만원(지난해 말 기준)과 비교하면 3.5배가 넘는 수치다.

최근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측은 개성공단 재개를 기다리는 기업들을 위해 특판전 행사 이외에 개성공단 기업 맞춤형 재도약 사업, 경영정상화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성남=김승열 기자 kimsy@



성남시가 지난해 7월 24~26일 성남시청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상품 특별 판매전. /성남시

경기도, 동북부지역 개발·지원방안 마련

새로운경기축 "지원예산 마련할 것" 재산권 행사 제한·소음피해 등 보상



조용천 새로운 경기위원회 위원장(국회의원. 남양주 갑)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가 법망의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받아온 경기 동북부지역을 지원하고자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새로운경기위원회 산하 안전행정분과(위원장 조용천, 이하 분과)는 '경기도 지역 균형 발전 지원 조례'를 개정해 특별회계를 확대하고 경기 동북부지역에 지원할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분과는 또 지역 균형발전위원회에 '경기 동북부 대책위원회 분과'를 구성해 조례 개정 준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조례 개정안에는 군사기지 주변 주민에 대한 복지증진을 골자로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및 자금 조성 ▲지역개발 지원사업 ▲도민소득 증대사업 ▲환경오염 치유 및 방지사업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업 설립·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공용비행장 내 자동소음측정망 설

치를 비롯해 민공공용비행장 내 민간 항공기의 운항횟수 및 야간비행, 야간사격 제한, 방음시설이나 녹지대 설치 등 소음방지시설에 대한 내용도 추가될 수 있다.

현재 경기북부 전체면적(4266㎢)의 44%(1878㎢)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공간 북부 도민은 재산권 행사제한, 지역사회 개발지연, 군항공기 소음·진동, 유탄 등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겪어왔다.

아울러 경기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남양주, 광주, 양평 등 경기남동부 지역 19만249㎢도 경기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4천76가구가 직·간접적 규제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분과는 조례안 개정 시 경기 동북부 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고성철 기자

광주 서구 등산로 담은 청사 '건강계단' 눈길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청사내 비상계단에 등산을 테마로 한 건강계단을 조성해 눈길을 끈다.

평소 바쁜 업무로 운동할 여유가 없는 직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을 챙기고 이와 함께 계단 이용으로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 또한 극대화 될 것이다.

전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건강계단 시안이 선정되었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되었다.

지하2층부터 지상8층까지 조성된 건강계단에는 각 층별로 등산 초입부터 정상

까지 구간별 산길 이미지를 실사로 표현했다.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 숲 이미지와 자연의 새소리, 천연 숲 향기 벽지 등 자연스러운 등산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또한, 비상계단 조도시스템을 보완해 어두웠던 계단을 밝게 조성하고, 건강정보, 생활 상식 등을 표시해 지루할 수 있는 공간에 재미를 더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건강계단을 오고가는 중 인사와 대화를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일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주=봉태영 기자

경기도, 산메기 2000마리 백둔천에 방류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올해 생산한 미유기(산메기, 갈딱메기) 2000마리를 16일 가평군 백둔천에 시험방류했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생산해 방류하는 미유기(산메기, 갈딱메기) /경기도

올해 생산한 미유기 치어는 자연에서 채집한 어미뿐만 아니라 500마리는 양식산으로 관리하던 2세대 어미에서 나온 3세대 치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자연산 어미만을 이용하던 양식방법을 벗어나 완전양식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와 가평군은 지난 2015년 미유기의 종 보존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미유기 양식에 대한 연구를 실시해 왔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올 해부터 미유기 치어생산에 이용한 어미와 방류할 미유기 치어의 유전자 분석을 실시해 유전정보를 확보하고 방류효과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미유기 양식에 필요한 전용사료개발을 위해 기초연구도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인천시 '에너지절약 캠페인' 실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정부의 하절기 전력수급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하절기 폭염발생 등에 따른 전력사용 급증에 대비하고 에너지절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봄 조성을 위해 '릴레이 민·관 합동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4일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다음달 3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인천국제공항, 시장, 역사, 대형 할인매장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인천지역본부, 한국열관리사협회 인천광역시회 등 25개 기관·단체 총 487명이 함께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구급대원의 응급환자 구조 논문 '화제'

SCI(E)급 국제학술지에 게재 승인

경기북부 구급대원이 고층건물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과학적 실험으로 모색해 화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파주소방서 김종호 소방교(사진)가 최근 SCI(E)급 국제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이 게재 승인 됐다고 16일 밝혔다.

제목은 '기계압박과 성문위기도기가 유효할류시간에 미치는 효과 :고층건물에서 발생한 병원 전 심정지 현장 시뮬레이션 연구'란 주제로 SCI(E)급 국제 학술지인 'Emergency Medicine International' 온라인 판에 지난 4일 게재 승인됐다.

김종호 소방교의 논문은 외국보다 저조한 국내의 병원 도착 전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데 목적을 둔 연구다. 특히 고층건물이 많은 국내 주거 특성상 환



자후송 시 물리적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고층건물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 기계압박 장치와 성문 위기도기의 효능을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 정리했다.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심폐소생술 방법보다 기계압박 장치 또는 성문위기도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슴압박 중단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며, 기계압박 장치와 성문위기도기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병원 도착 전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고성철 기자 ksc@